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The Welfare economics of infectious happiness Richard Povey

■ Economic Letters, 133(2015), 1-3.

저자는 행복이 전이된다(infectious)는 것이 최근 실증적 근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happiness economics)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voluminous), 이를 모두 밝히는 것보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복의 경제학의 시작은 Easterline(1974)에서 비롯되는데, 즉 본 연구의 내용은 비록 1인당 GDP와 행복과의 장기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의 기록된 수준(reported levels of individual life satisfaction)은 소득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루 수용되고 있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e paradox)의 해법을

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실상의 소득과 정(+)의 관계에 있고, 비교 그룹(지역, 국가, 국가 간)의 참조 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다음으로 이러한 행복 함수를 경제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일련의 기제로 해석한다면,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개인들이 분권화된 균형에서 노동을 과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전이 가능성은 최근에서야 연구된 사안으로서, 20년 정도 지난 심리학적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관적으로 기록된 행복감은 다른 사람의 행복감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직장 동료, 이웃, 가족 간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Fowler and Christakis, 2008). 반면,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인 면이 있고(tentative), 어떤 밝혀지지 않은 통상적인 요소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허구의(spurious) 관찰된 전이 효과를 야기하는 사실에 기인한 특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Cohen-Cole and Fletcher, 2008).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구는 아니지만,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중국으로 하고 방법론을 도

구변수 접근법(IV approach)으로 한 Knight and Gunatilaka(2009)의 연구에서는 전이된 행복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반면, 가장 최근인 2014년 Tumen et al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와는 반대로 대체 도구변수 접근법을 적용하고, 영국의 지리적, 직업적 그룹을 범주화한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한 사람은 더 소규모의, 친밀한 그룹 내에서 전이된 행복을 더 쉽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들이 사회후생함수(SWF)와 초과 노동 공급(excess labour supply)을 적용한 수리적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개인이 행복의 전이 외부성을 인지하게 되면, 아울러 다른 이들의 행복 변화에 따른 그들의 행복에 대한 어떤 영향력 있는 행동의 간접적 효과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전이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일을 적게 할 것이다. 의식하는 전이성은 한 개인이 속한 그룹의 공공재에 대한 높은 기여를 낳게 되고, 부유한 이들로부터 가난한 이들로의 이타적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이 인지는 행복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타 수리적 분석과정과 연구의 한계점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Fertility and unemployment in a social security system Leran Wang

■ Economic Letters 133(2015) 19–23.

저출산과 실업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지난 수십년 간 겪고 있는 여러 당면과제를 야기하였다. 저자는 이에 다음과 같이 물음을 던진다. “두루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저출산과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들은 자녀를 (가용할 수 있는) 소비재로 인식하거나 투자재로 인식하는 점이다. 소비재로 인식하는 관점인 이타주의 가설(altruism hypothesis)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는 오는 만족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이고(Barro and Becker, 1989), 후자인 이기주의 가설(egoism hypothesis)은 부모가 자녀를 일종의 노후 소득 보장(old-age security considerations)의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Cigno, 1993).

한편, 저출산에 미치는 연금의 영향을 고려한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g., Cigno and Rosati, 1992 ; Hohm, 1975).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동을 양육하는 동기는 그들의 미래의 삶이 연금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Fanti and Gori(2007)은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율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의 근거는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주어진 최소임금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세대중첩모형(OLG)을 아동양육수당뿐 아니라 PAYG 공적 연금을 경제에 도입하여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두 가지 보조금이 내생적 출산과 실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The government), 소비

(Consumption), 생산(Production), 자본시장(The Capital market)으로 구성된 OLG모형을 적용하여 균형을 찾고 공적연금의 효과와 이동수당의 효과를 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사회보장제도는 PAYG 연금과 이동수당 두 가지를 상정하고, 최소 임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상수(일정한 것)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는 높은 수준의 연금은 출산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낮은 수준의 연금은 그 반대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동수당 역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자세한 수리적 분석과정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cohort fertility dur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 Sam Hyun Yoo, 2014, *DEMOGRAPHIC RESEARCH. VOLUME 30, ARTICLE 53.*
pp.1463-1494.

저자에 따르면 여성의 학력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중 소수의 연구만이 출산의 변천(fertility transition) 과정 전반에 대한 출산격차(fertility differentials) 패턴에 대해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십년 간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동태적 연구를 진행하는 케이스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연구는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격차의 패턴을 연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산변천 과정 중 여성

의 학력신장 및 교육적 성취가 출산률 저하에 미친 공헌도를 설명하고자 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집단(cohort)을 기준으로 연구를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1970년~2010년까지 행한 한국의 인구조사자료를 사용했고, 1926년~1970년에 태어난 여성을 출산집단으로 분석했다.

교육적 성취에 따라 출산차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출산은 모든 그룹에서 감소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 변화(향상)는 출산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출산변천 과정 동안 아이를 적게 낳는 트렌드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퍼져나간다.

계층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가 한국의 출산변천의 핵심 요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교육의 확대가 출산수를 떨어뜨리는데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저하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사회적 계층에 따른 출산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 행동과 아이디어의 확산을 담당할 것이라 표명하고 있다.

The Labor Supply and Welfare Effects of Early Access to Medicare through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eonghoon Kim, 201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복지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장애

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건강보험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는 막대한 의료지출 비용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SSID(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수혜자는 현금수당을 받고, SSID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메디케어(Medicare)의 건강보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SSDI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위에서 밝힌 상황을 보고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첫째, SSDI 등록을 통한 메디케어의 접근은 퇴직에 대한, 그리고 SSDI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 둘째, SSDI를 통한 메디케어의 접근은 어떤 후생이 있는가. 셋째, SSDI 정책이 메디케어 수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 소비 그리고 SSDI 지원결정에 대한 생애주기 모델을 사용했다. 데이터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사용했으며 Indirect Inference 방식을 이용했다.

SSDI 등록을 통한 메디케어 이용은 23세에서 62세 남성의 고용수준은 0.7% 포인트 하락(87.7%에서 87.0%)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 가입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갖더라도 SSDI를 통한 메디케어 보장적용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했다. 또한, SSDI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2년의 대기기간을 늘리는 것이 SSDI 스크리닝 기준강화보다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valuating the possible impact of pension reforms on elderly poverty in Europe

■ 저자: Grech, A.

학술지명: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 Vol.49, Issue 1, pages 68-87,

January 2015

누구를 위한 연금개혁인가?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위주의 변화를 보여 온 연금제도가, 능사가 아님을 수치적 접근을 통해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최근 수십 년 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급진적으로 그들의 연금제도를 변화시켜왔으며, 그 기준은 제도의 지속성이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지급의 성격 및 지급액 모두 변경되었는데,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제도측면의 미래지출의 감소가 미래의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상의 변수들을 이용해 연금자산을 추정하고, 개혁을 통한 변화 및 영향을 평가한다. 또한 연금수급자의 은퇴시점 대신 미래의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연금수급자의 이익(연금액)변동 측면에서의 정보를 제공하여 연금개혁의 결과가 연금수급자의 수익감소임을 밝힌다.

적절한 적립제도 및 최소연금액과는 관계없는 지속가능성 위주의 제도변화는 곧 연금수급자의 은퇴시점 이후, 고정수익 감소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밝힌다.

보건복지포럼

매일 발행되는 『보건복지포럼』은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정책 전문지**입니다.

2015년 6월호 (통권 제224호)

등록번호 세종 라00008
등록일 1996년 10월 1일
발행일 2015년 6월 1일

편집인/발행인 최병호

편집위원장 정경희

편집위원 강유구 김동진 류정희 박실비아
신윤정 신화연 오미애 임완섭
황남희 황도경

편집간사 강소선

인쇄 대명기획(TEL: (02)2263-1292~3)

가격 **4,000원**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대표전화 (044)287-8000

FAX (044)287-8056

E-mail bookadm@kihasa.re.kr

정기구독안내

■ 신청방법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서
회원등록을 하십시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간행물 구독안내」

([http://www.kihasa.re.kr/html/jsp/
publication/subscribe_guide/subscribe.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subscribe_guide/subscribe.jsp))

정기구독 / 배포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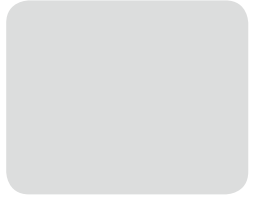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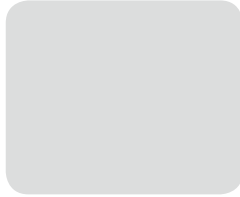
TEL: 044)287-8157 / FAX: 044)287-8056

■ 정기구독회원 특전

1. 연간구독료는 35,000원입니다. 날권 구입에 비해
연간 약 50%가 할인된 금액입니다.
2. 정기구독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를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보건복지포럼』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조사사업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구분야**의 기초통계 생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외부 연구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데이터 목록

번호	데이터명	제공연도
1	노인실태조사	2011, 2008, 2004, 1998, 1994
2	환자조사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5, 2002, 1999, 1996
3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2009, 2006, 2003, 2000, 1997, 1994, 1991
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2009, 2005
6	노인보호실태조사	2009
7	중년층생활실태조사	2010
8	장애인실태조사	2011, 2008, 2005, 2000
9	영아모성사망조사	2007~2008
10	차상위계층실태조사	2007, 2004
11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2004, 2003, 2002
12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2001
13	우리나라 치매노인실태조사	1997
14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15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 수요 조사	2012

조사자료 담당자 연락처



TEL: 044) 287-8197 FAX: 044) 287-8069

E-mail: micro@kihasa.re.kr

Homepage: <http://hawelsis.kihasa.re.kr>